

동계(東谿) 조귀명(趙龜命)의 자전적(自傳的) 운문 연구*

김민학**

<차례>

1. 서(緒)
2. 조귀명의 운문 창작 태도와 경향
3. 자전적(自傳的) 운문에 드러난 조귀명의 사유
 - 1) <차제경술회운(次際卿述懷韻)>
 - 2) <유회부(幽懷賦)>
4. 결(結)

<국문초록>

본고는 동계(東谿) 조귀명(趙龜命, 1692~1737)의 운문에 드러난 자전적 면모를 분석한다. 조귀명은 산문(散文)에 치중하였지만 그가 남긴 27제(題)의 시(詩)와 6편의 부(賦)에는 빼놓을 수 없는 사유가 녹아있다. 운문에 드러난 조귀명의 사유는 산문의 언어가 아닌 시의 언어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내면적이며 함축적이다.

그 중에서도 자기 술회 양상이 드러나는 <차제경술회운>와 <유회부>를 중요한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차제경술회운>은 5가지 테마를 제시해 자신의 삶과 사유를 읊었다. 5가지 테마는 조귀명이 자신의 인생과 사유를 술회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유회부>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갈등을 내적으로 해소하는 경과를 자술한 작품이다. 특히 <유회부>에는 조귀명이 앓았던 고질병[眞疾]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조귀명의 사유는 질병을 제외하고는 논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유회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산문가 조귀명은 익숙하지만 조귀명이 지은 율어(律語)는 조귀명 연구자에게도 생소하다. 이 두 작품은 조귀명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 이 글은 2023년 8월 25일 ‘한국한문학회 한국명승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동계 조귀명 운문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원고를 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BK21 동아시아고전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 BK박사후연구원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먼저 조귀명 운문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본 후, 〈차제 경술회운〉와 〈유회부〉를 분석하여 조귀명의 삶과 사유가 운문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조귀명 내면의 갈등과 모순을 정합적으로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趙龜命, 韻文, 次際卿述懷韻, 幽懷賦, 自傳

1. 서(緒)

본고는 동계 조귀명(1692~1737)의 운문 창작경향을 개관하고, 그 중 자전적(自傳的) 면모를 담은 작품을 분석한다. 조귀명은 18세기 초 문단에서 가장 뛰어난 문인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는 문장에서 소식(蘇軾)을 모범으로 삼았으며, 『장자(莊子)』와 불교를 깊이 이해했다. 그 결과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실로 짐작하기 어려운 깊은 사색을 남겼다. 이러한 사색은 문장으로 남아 조귀명은 당대에는 물론 구한말까지 읽혔다. 조귀명의 문장이 생명력을 가진 것은 주로 그의 산문에서였다.

조귀명은 산문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문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요한 상태에서 깨달은 사물의 이치를 문장에 담아내는 것이 조귀명의 궁극적인 목표였다.¹⁾ 여기에 가장 적합한 문체가 산문이었던 것이다. 산문가로의 면모는 『동계집(東谿集)』의 편차에도 잘 나타나 있다. 처음에 부(賦)와 사(辭) 및 시 등의 운문이 놓이고 중간에 여러 산문 작품들이 배열되고, 대개는 비지(碑誌)로 끝나는 우리나라 문집의 일반적인 편

1) 김민학, 「東谿 趙龜命에 있어서 意의 실체와 세계인식」, 『동양한문학연구』 67, 2024, 동양한학회, 41~52쪽.

차와는 달리, 『동계집』은 서(序)와 기(記)가 처음에 놓이고 비지와 행장(行狀)이 그 뒤를 잇고 논책부시(論策賦詩)가 제일 뒤에 배치되었다.

그렇지만 조귀명이 남긴 27제의 시와 6편의 부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유만주(兪晩柱)는 조귀명의 시를 읽고 “이는 건천(乾川)의 시인데 향산(香山, 백거이)과 흡사하다.”²⁾는 평을 남겼다. 유만주가 조귀명의 시를 알아보고 비평을 남긴 작품은 따로 시에 편차된 작품이 아니라 송서(送序)에 붙은 시이다. 이로부터 후대의 문인들은 그의 산문뿐만 아니라 시 역시도 일별하면 바로 알아볼 정도로 익숙하게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은 세계와 자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조귀명에게 그 갈등은 통상의 그것보다 더욱 중대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귀명의 경우에는 ‘질병(疾病)’과 ‘문장(文章)’이 주된 원인이 된다. 이러한 갈등의 인식과 내적 해소방안이 운문에 잘 드러나 있다. 율어(律語)는 통상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고도의 추상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말려써 다할 수 없어서 그 나머지에 발(發)하는 것이 시가 된다.’³⁾는 선언은 이러한 시의 속성을 잘 말해준다. 조귀명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란 바로 자신의 내면이다. 자신의 사유는 산문으로 아무리 써도 타인의 이해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내면을 잠시나마 율어로 해방시킨 자전적 작품이 조귀명 운문의 핵심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인 면모가 적은 조귀명 운문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명리와 설리’, ‘호일(豪逸)과 초월(超越)’, ‘산문적(散文的) 구법 활용’의 속성이 이를 잘 보여준다.⁴⁾ 이

2) 『欽英』. “城塵十丈浮軟紅，爭名射利汨西東，獨怪吾宗諸夫子，作用談爭熱鬧中，閑談積來味啖蔗，熱鬧經盡迹飛鴻，梅花會後除夕飲，次第取樂真無窮。此乾川詩也，恰似香山。” 初十日，癸未(1775년 11월 10일).

3) 蔡沈, 〈詩經集傳序〉. “既有言矣，則言之所不能盡，而發於咨嗟詠歎之飲者，必有自然之音響節奏而不能已焉，此詩之所以作也。”

4) 김형술, 「동계 조귀명의 시문학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12,

러한 특징들은 조귀명이 운문에 자신의 독특한 내면을 담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조귀명의 산문은 다각도로 연구되어, 최근에는 개별 작품 분석을 진행한 박사논문도 제출되었다.⁵⁾ 그러나 조귀명의 시와 부, 찬 등의 운문은 아직 연구가 미진하다.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시와 부에는 작가 조귀명의 면모가 요약되어 있으며 산문을 넘어선 함축이 담겨있다. 조귀명은 강렬하고도 독특한 자아를 여러 문체로 표현하였는데, 운문의 함축으로 표현한 내면은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운율은 형식적 구속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어를 초월해서 사유의 원형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조귀명의 운문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에 힘입어 조귀명의 자전적 토로가 운문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조귀명의 운문 창작 태도와 경향

조귀명은 평소 시에 능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시에 비해 문장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토로하였다.⁶⁾ 남유용은 세상을 떠난 조귀명을 회상하며 그가 기질적으로 시 짓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평을 남겼다.⁷⁾ 조귀명이 시에 취미가 없었음은 자타공인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산문을 전반에 시와 부

225~247쪽.

5) 문미애, 「동계 조귀명 산문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6) 『동계집』 권1, 〈華谷集序〉. “余素不能詩, 於窺居士之稿也, 茫然眩惑, 殆如鸛鷓之饗鐘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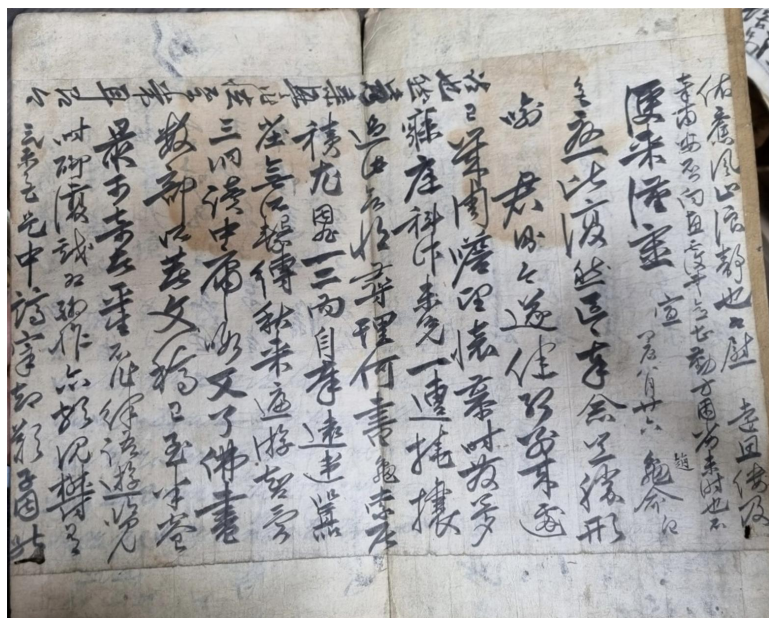
『동계집』 권7, 〈書贈汝範〉. “余素不能詩, 不知格調之近於何作, 而平日觀物意思自如此, 故偶發之矣.”

위의 책, 〈趙聖言詩集叙〉. “余顧文而不詩, 非聖言之子雲也.”

7) 南有容, 『雷淵集』 권3. 〈和東谿詠杜鵑詩〉, “亡友趙錫汝, 性不喜爲詩.”

를 뒤쪽에 배치한 『동계집』의 체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조귀명이 시 창작에 흥미를 느낀 시기가 있었다고 자술한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새롭게 발견된 다음의 간찰은 1724년 조귀명이 지리산을 유람하는 도중에 누군가에서 보낸 것이다.⁸⁾ 여기에 조귀명의 시작(詩作) 경향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보인다. 이해를 위하여 간찰의 실문과 원문을 아울러 제시한다.



便來，謹審色憂比復然，區々奉念，豈勝形喻。君則今遂健紅別來，遽已歲周，瞻望懷慕，時發夢寐。庭科，計未免一遭[捶攘]，過此，欲將尋理何書？龜，索居積尤，因非一二，而自奉遠違囂塵，無所繫縛。秋來，遍游智異三洞，讀中庸暇，又了佛書數部，所著文稿，已至半卷。最可奇者，平生不作律語，遊覽時，聊復戲爲酬作，亦頗沈鬱有氣色，是中謫宰，却歎。子因能詩也。

8) 개인 소장.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김영진 선생님께서 제공해주셨다.

然此乃乘興作怪，不可常耳。卽今依舊，風止浪靜也，爲慰。遠思縷及奉甫安否。向惠覆無意甚動，方困劣未時也。不宜。甲辰(1724)八月廿六 龜命白⁹⁾

밑줄을 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을에 들어 지리산과 안의(安義) 삼동(三洞)을 두루 유람하면서 『중용(中庸)』을 읽는 여가에 또 불서(佛書) 몇 가지를 읽어서, 저술한 문고(文稿)가 벌써 반 권이나 됩니다. 제일 기이한 일은 제가 평생 읊어를 짓지 않았습니다만, 유람할 때는 그런대로 재미삼아 수작(酬作)을 하고, 그 읊어가 또한 제법 침울(沈鬱)하고 기색(氣色)이 있어서 적재(謫宰)에 맞는 것입니다. 한탄할 일이지요. 그대는 시에 능합니다만, 제가 시를 짓는 것은 흥(興)을 타고 괴이한 일을 해보는 것일 뿐 언제나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1724년은 조귀명 32세로 지리산을 유람하며 <유서계기(遊西溪記)>, <유용유담기(遊龍游潭記)>, <유지리산기(遊智異山記)> 등의 기문을 남겼다. 조귀명이 불서(佛書)를 읽고 저술한 문고는 이후 <박장천각호법론(駁張天覺護法論)>, <무설헌기(無說軒記)> 등으로 정리한 작품과 정혜(定慧), 태우(泰宇) 등의 승려들과 교류하며 주고받은 편지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조귀명은 평생 짓지 않던 읊어를 유람할 때는 재미삼아 지었으며, 누군가와 수작했다고 하였다. 또 이렇게 지은 시를 ‘제법 침울하고 기색이 있었다.’라고 자부하였다. ‘침울(沈鬱)’은 단순한 우울감을 뜻하지 않는다. 『시인옥설(詩人玉屑)』에서 “이태백이 두자미의 침울을 할 수 없다.”¹⁰⁾라고 한 데에서 보듯, 문학적 풍격에서 ‘침울’은 깊은 사색에서 나오는

9) 탈초는 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 김윤조 선생님과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장유승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10) 『詩人玉屑』, “子美不能爲太白之飄逸，太白不能爲子美之沉鬱。太白夢游天姥吟、遠別離等，子美不能道；子美北征、兵車行、垂老別等，太白不能作。論詩以李杜爲準，挾天子以命諸侯也。”

고쳐며 그 풍격이다. 이어지는 ‘홍을 타고 괴이한 일을 해보는 것’이라는 말은 물론 검사이다. 조귀명은 누군가에게 이 편지와 시를 함께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32세의 조귀명이 남긴 시는 〈해인사주필차고운운(海印寺走筆次孤雲韻)〉, 〈영화삼수(詠畫三首)〉, 〈두류가차이첨운(頭流歌次李詹韻)〉, 〈차제경술회운오수(次際卿述懷韻五首)〉, 〈고의(古意)〉, 〈수신가차제경운(守申歌次際卿韻)〉의 6편이다. 지리산을 유람한 이 시기는 조귀명 평생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때이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마치 유기(遊記)처럼 남긴 시나 제발(題跋)과 같이 그림을 감상한 작품이 아니라, 스스로의 사유와 인생의 질곡을 읊은 〈차제경술회운오수〉이다.

조귀명 스스로 그 작품성을 자부한 것은 바로 〈차제경술회운오수〉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추측된다. 이 작품은 산문에 치중하였던 조귀명이 시의 언어로 남긴 자전적 작품이라는 점에서 조귀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귀명의 운문 전반을 조망하기 위해 본고의 부록으로 ‘시부(詩賦) 창작 시기와 형식’을 첨부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창작 경향은 다음 몇 가지로 꼽을 수 있다.

1. 차운시가 많다. 제목에 ‘차(次)’가 들어가는 시가 27제 가운데 14제나 된다. ‘화(和)’가 들어가는 1제를 포함하면 15제의 시가 차운 및 화운시이다. 또한 좌석에서 호운(呼韻)하여 지은 것도 2제이다. 부 역시 마찬가지로 6편 중 3편이 차운과 의작(擬作)이다. 이처럼 많은 차운시와 부는 조귀명이 스스로 운자를 정하여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작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교유의 산물이다. 차운시가 많다는 앞의 항목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이름이나 자(字)가 들어가는 시가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 화곡(華谷) 조이창(趙爾昌)이 네 차례, 제경(際卿) 조우

명(趙遇命)이 두 차례 보인다. 그 외에 조현명(趙顯命), 동학제생(同學諸生), 동산상공(東山相公), 주영(朱樞), 홍중경(洪仲經), 여러 족형(族兄), 조재호(趙載浩), 이침(李詹), 김침지(金僉知), 신계직(申季直), 이여정(李汝淨), 임백신(任伯新) 형제(兄弟), 성자경(成子擎) 등이 시를 통해 조귀명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한 인물들이다.

3.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조귀명의 시는 가행체(歌行體)를 비롯하여 장편이 많다. 절구(絕句)와 고시(古詩) 형식이 섞인 <나억령강서팔영(羅億齡江墅八詠)>을 제외하면 율절(律絶)은 6제에 불과하며, 20제는 자유로운 고시 형식이다. 또한 측성운을 쓴 고시 <나억령강서팔영>과 율절에서도 통운(通韻)한 <주차김침지운(走次金僉知韻)> 등의 작품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창작경향을 잘 보여준다.

그 외에도 <고의(古意)>, <사고인행(思古人行)> 등, ‘고(古)’와 관련된 시, 그림에 붙인 <제화(題畫)>, 상당산성(上黨山城)이나 망선루(望僊樓), 두류산(頭流山)과 해인사(海印寺) 등을 찾은 시를 마치 유기처럼 남기고 있고, 제석(除夕)과 수신(守申)하는 풍속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만시(挽詩)는 두 편만 보이는데, 만시를 그렇게 적게 지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만시를 대하는 조귀명의 생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집에 남은 작품이 엄정하게 선별되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귀명 운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전적 서술’이다. 조귀명은 끊임없이 현실을 초월하고자 노력하였다. 조귀명에게 현실이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동시에 이는 조귀명 개인을 형성한 외부적 요인이기도 하였다. 조귀명은 평생 현실과의 갈등을 고민했다. 현실 정치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념, 문장, 세계 전반에 걸친 갈등이었다. 이러한 갈등을 겪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러한 고민이 자전적 운문으로 표출되었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마음(主人公)이다.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닌 시의 언어에 담긴 조귀명의 자이는 산문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이어서 <차제경술회운>와 <유회부>를 분석한다.

3. 자전적 운문에 드러난 조귀명의 사유

1) <차제경술회운(次際卿述懷韻)>

<차제경술회운>은 조우명(趙遇命)의 「술회(述懷)」시를 차운한 시로 총 5수이다. 조우명은 조귀명의 서숙부(庶叔父) 조담수(趙聃壽)의 아들이다.¹¹⁾ 이 작품은 앞서 살펴본 간찰에서 말한 ‘평소와는 달리 시작에 약간의 흥미를 가진 시기의 작품이다. 조귀명은 ‘그런대로 재미삼아 수작(酬作)한 작품’이라고 하였지만, ‘제법 침울하고 기색이 있다.’는 자부처럼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의 테마—도학(道學), 문장(文章), 처세(處世), 봉당(朋黨), 병고(病苦)를 치열하게 읊은 장편시이다. 이는 단순한 내면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으로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성찰을 포함한다. <차제경술회운>야말로 조귀명의 시각을 이해하는데 가장 긴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제목 하에 연관된 여러 주제를 나열하는 구성은 조귀명 작품에 종종 보이는 방식이다. 대책문(對策文)인 책경(策經)은 도학, 사공(事功), 공론(公論), 시습(士習), 관방(官方)의 다섯 가지 주제를 담았고, <정제(靜諦)>는 정좌(靜坐), 천여(天與), 애락(哀樂), 학지(學之), 인신(人身)의 다섯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수의 시로 이루어져있는 <차제경술회운>도 비슷한 구성을 가진다. 각 수마다 학문, 문장, 처세, 봉당, 질병의 명료한 주제를 가진다. 비록 작품의 제목도 차운시라는 점을 밝히는 데서 그칠 뿐

11) 조우명(1696~1766)은 조귀명의 서숙부(庶叔父) 조담수(趙聃壽)의 아들이다. 반남 박씨(潘南朴氏) 박태래(朴泰來)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며, 매 수마다 따로 제목을 두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목조목 읊었음을 알 수 있다.

첫 수를 살펴본다.

도(道)는 주공(周公)·공자(孔子) 얻어 드러나고	道得周孔顯
학문은 낙민(洛閩)에 이르러 은미(隱微)하네	學至洛閩微
천 년 세월 백가(百家)가 내달렸지만	千秋百家馳
한 극점(極點)에 훌륭한 이 다 모여 드네	一極衆聖歸
비유하면 옹주(雍州)·양주(楊州) 바친 공물이	譬如雍楊貢
모두 기주(冀州)의 경기(京畿)로 도달하는 듯	均爲達冀畿

하늘이 낸 사사물물(事事物物) 법칙이 온전하여	天生物則全
어릴 적 뜻과 기개 날아오를 듯 했지	年幼志氣飛
적막한 건곤(乾坤)은 트여있고	寂寞乾坤曠
뜨고 지는 해와 달 밝게 빛나네	浮沉日月輝
처량한 것을 지금 어찌할까	戚戚今奈何
고개 돌리니 사십 평생 잘못 되었네	回頭四十非

첫 수는 조귀명의 체험이며, 총 5수 중 첫머리에서 조귀명의 사유를 대표하고 있다. 6구씩 묶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주공과 공자의 도, 낙민의 학문을 찬미하였으며 후반부에는 이를 통한 개인적 감회를 읊었다.

천하의 도는 주공과 공자가 현양(顯揚)한 것이며, 이 도를 정자(程子)와 주자(朱子)가 깊이 있는 학문으로 만들었다. 그러한 장구한 세월 동안 한편으로는 백가가 내달렸다. 여기서 치(馳)라는 시어는 노장(老壯) 등으로 대표되는 백가가 주공과 공자, 정자와 주자처럼 각기 특별한 뜻을 담아 나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한 인재들은 오로지 유가의 도와 학을 규범으로 삼아 귀의하였다. 그 아래 연의 옹주·양주의 공물이 기주의 경기로 모인다는 것은 이를 비유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조귀명의 주관적 체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이 현재 어떠한 규범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표현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조귀명은 하늘이 낸 물칙(物則)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것에 매진했던 어린 시절의 뜻은 자못 드높았다. 그런데 적막한 건곤은 공허하고, 뜨고 지는 해와 달은 밝을[寂寞乾坤曠, 浮沉日月輝] 뿐이다. 조귀명은 처량한 심정 속에서 사십 평생이 그릇되었다고 후회하고 있다. 그런데,

하늘이 낸 사사물물 법칙이 온전하여	天生物則全
어릴 적 뜻과 기개 날아오를 듯 했지	年幼志氣飛

라는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전(全)이라는 것은 만물에 갖추어진 ‘온전한’ 이치를 의미한다. 조귀명은 과라(果蓏)와 같은 사소한 물건에도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다.¹²⁾ 첫 구의 도(道)는 사물에 갖추어진 이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공과 공자를 통해 드러났으며, 정주는 학(學)으로 이를 정묘(精妙)하게 탐구하였다.

이 시를 지은 해(32세, 1724년)에 나침(羅沉)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이 마음에서 깨달은 이치를 문장에 담아 전하고자 한다는 말¹³⁾이 보인다. 21세에 지은 시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이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언급¹⁴⁾이 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유년기의

12) 趙龜命, 《靜諦》, 『동계집』 권8, “形家之理有乎哉? 曰有, 果蓏有理, 況山川葬地乎?”

13) 趙龜命, 『東谿集』 권1, 〈贈羅生沉序〉. “文章何爲而設也? 天下之事有禁而錯者矣, 天下之理有深而曠者矣, 而天下之人, 未必人人而知之, 吾則幸而知之矣, 心乎知矣, 而不言之於口, 則無以覺夫後覺者也. 口乎言矣, 而不筆之於文, 則天下之廣, 恐無以家喻, 而後世之遠, 恐無以不死而誨之也. 故文章者, 古之聖人所得已而設也.”

조귀명은 정주가 당시에 그러한 것처럼 뜻과 기개를 높이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이치를 이해하겠다는 이상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구절은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적막한 건곤은 드넓고, 뜨고 지는 해와 달은 밝게 빛난다.[寂寞乾坤曠, 浮沉日月輝]’는 연에서, 건곤은 공간이며 일월은 시간이다. 우주는 그대로 무한히 넓으며, 세월은 끊임없이 흐른다. 이는 중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을 만큼 우주는 드넓고 세월은 장구하다. 그렇지만 자신은 시공간이 주는 무한한 존재의 이득함 속에서 천하 만물이 초연히 자재하다는 것 정도만을 깨달았을 뿐이다. 마지막 연의 회한은 이어지는 2수에서 천하 만물의 진리를 문장에 담고자 하는 의지에 닿아있다.

첫 수가 도를 주제로 하였다면, 두 번째 수는 문장이 테마이다. 첫 수와 두 번째 수는 구성과 내용에서 연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각각 따로 도학과 문장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조귀명 스스로 이해하는 도학은 이리 한데, 이에 비해 문장은 이러하다는 것이다.

장자와 사마천은 정말로 훌륭하고	莊馬眞可兒
한유와 소식 또한 대단한 솜씨	韓蘇亦張軍
능금과 귤 모두 산미(酸味)가 있고	植橘齊酸味
용과 호랑이 각각 문채(文彩) 밝다네	龍虎各炳文
수릉(壽陵)의 여자(餘子)인 양 월로(月露) 다투나	餘子競月露
유업(遺業)은 안개와 구름처럼 허망하기만	遺業空煙雲
온갖 요괴 중원을 어지럽히고	百怪中原亂
천 년을 좌해(左海)에 재앙 끼쳤지	千年左海氛
재갈대는 것은 무슨 말인가	啞啞何等語

14) 趙龜命, 『東谿集』 권2, 〈同學諸生, 拈農巖集述懷詩韻, 共賦, 余亦作戲語, 次之.〉

악취에다 썩은 냄새 건달 수 없네	臭腐不堪聞
드높고 큰 한평생의 기약을 세우니	落落平生期
우담발화가 못 향기를 압도하리라	曇鉢壓衆芬

역시 6구씩 묶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수 전반의 6구는 주공과 공자의 도, 낙민의 학문을 말하였다면, 두 번째 수에서는 장자와 사마천, 한유와 소식을 문장에 걸출한 인물로 꼽았다. 능금과 굴처럼 신 맛이 있고, 용과 호랑이처럼 무늬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모두 각자의 뜻을 가지고 문장을 썼다는 의미이다.

3연은 장자와 사마천, 한유와 소식과는 달리 각자의 맛과 무늬를 가지지 못한 이들을 비유하였다. 수릉 땅의 젊은이처럼 타인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다가 자신의 걸음걸이마저 망각한 줄도 모르고 그저 화려한 문장[風花月露]을 뽐내지만, 이는 안개와 구름처럼 공연할 뿐이다. 수릉 땅의 젊은이가 배우고자 한 것은 장자와 사마천, 한유와 소식 같은 모범의 ‘형상’에 불과하다. 앞서 말한 대로 조귀명은 문장은 시대를 따라 변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릉의 젊은이가 닮고자 하는 모범은 당시의 모범일 뿐이다. 그래서 허망하다.

앞서 첫 수의 전반 6구가 세계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묘사한 것과 같이, 두 번째 수의 전반 6구도 중국 문단의 현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첫 수의 시상이 자신의 내면-사사물물의 이치를 깨우치고자 한 의지로부터 시공간으로 열린 무한한 이치로 진행되었다면, 두 번째 수의 시상은 조선 문단의 현실을 진단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이는 첫 수에 비해 구체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표현으로 이루어져있다.

온갖 괴이한 것[百怪]들은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에 그 폐해를 전이한지 오래이다. 이는 재질대는 소리[嗚啾]에 불과하며, 악취를 풍길 뿐이다. 그리하여 조귀명은 우리나라의 폐단을 일소하기를 기약하였으며, 이를 우담

바라가 여러 향기를 압도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마지막 두 구는 첫 수의 마무리와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도로 대표되는 만물의 이치를 말하는 첫 수가 직관적이고 계시적인 비유에 그친 반면, 문장을 말하는 두 번째 수에서는 자신의 특별한 기개를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와 문장에 대한 조귀명의 입장을 고찰해보아야 한다.

조귀명에게 문장의 성패(成敗)는 문장에 달려있지 않다. 육경 이하 제자 백가들의 입언(立言)이니 명세(名世)니 하는 것들은 모두 조물주의 오묘함, 다시 말하면 천하 만물의 이치를 살펴 그 진정(眞情)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이것이 바로 술과 작의 태도이다.¹⁵⁾ 그러나 현재의 문장은 술과 작의 정신을 파괴하고 옛 사람의 필력만 본받으려고 한다. 천하 만물의 이치를 마음에서 분명하게 깨달으면 문장이 막힘없이 나오는 사달(辭達)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¹⁶⁾ 이는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문장으로 풀어내는 것은 수월하다는 의미이다. 하늘이 자신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만든 이유는 그저 글만 좋게 쓰도록 함이 아니라,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그 도를 천하 후세에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¹⁷⁾ 자신은 이미 천하의 이치를 알고 있으며¹⁸⁾, 문장은 천하 이치의 전달체일 뿐이라는 사고방식 위에서 두 번째

15) 趙龜命, 『東谿集』 권1, 〈贈羅生沉序〉, “聖人之智, 固周乎事理, 而事理無窮, 終身言之有不能畢者, 故前之所闕, 後或發焉, 是之謂作。語之偏全, 由乎資質, 而文之詳略, 因乎時代, 古之人雖言之, 而其補苴張皇, 乃係于後賢, 是之謂述。凡六經以下, 諸子之以立言名世者, 皆是物也。其它文藝之士, 要亦窺造化之妙, 發事情之眞, 其言有以備一物之數, 而不可廢於天下。”

16) 趙龜命, 『東谿集』 권10, 〈答敬大書〉. 嘗愛東坡語: 求物之妙, 如鑿風捕影. 能便是物了然於心, 而了然於口與手, 是之謂辭達. 辭至於能達, 文不可勝用矣. 夫能了然於心, 而不能了然於口與手, 無是理也.

17) 趙龜命, 『東谿集』 권10, 〈答趙盛叔【爾昌】書〉, “天之賦我以五常之性, 而名我以萬物之靈者, 將使好其辭而已乎? 抑使求其理而行其道乎?”

18) 趙龜命, 『東谿集』 권1, 〈贈羅生沉序〉, “文章何爲而設也?? 天下之事有筭而錯者矣, 天下之理有深而蹟者矣, 而天下之人未必人人而知之, 吾則幸而知之矣. 心乎

수의 자부심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수의 주제는 ‘치세(處世)’라고 할 수 있다.

읍양하던 요순 시기 옛날이고	揖讓助華遠
난리는 말세에 의당 있는 것	干戈叔季宜
벼슬길은 분수 밖의 영화이고	靑紫分外榮
낚시는 꿈속에서 기약할 일	漁釣夢中期
초명(鷓明) 잡으려다 덩불숲만 바라보니	鷓明空視藪
기린은 굴레를 받아들이지 않네	麒麟不受羈
자기까지 더럽힐 듯 뒤도 안 보고 가니	望望如將洩
고생살이를 무엇 때문에 할까	役役何所爲
이름 없어야 성인이고	無名方聖人
자유로워야 남아(男兒)라네	自由是男兒
오히려 선방(僊方)을 배워서	猶欲學僊方
죽지 않고 시국을 보고자하네	不死試閱時

첫 연에서 조귀명은 당시의 시대상을 진단하였다. 요순시대가 한참 옛날이며 현재는 숙세(叔世)이자 계세(季世)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상고주의(尙古主義)가 드러난 현실인식으로 보인다. 옛날은 유토피아고 현재는 말세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문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의(宜)’자의 어감이 석연치 않다. ‘의(宜)’가 운자이기는 하지만, 평성(平聲) 지운(支韻)의 글자 수를 고려해보면 꼭 쓰지 않아도 무방했을 것이다. ‘의(宜)’에는 조귀명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담겨있다. 조귀명은 현실에 전연 개입하지 않고 마치 신선과 같은 입장에서 숙계세(叔季世)를 유유히 관조하는 입장

知矣，而不言之於口，則無以覺夫後覺者也。口乎言矣，而不筆之於文，則天下之廣恐無以家喻，而後世之遠恐無以不死而竣之也。故文章者，古之聖人所不得已而設也。”

이다. 아래 예시하겠지만, 이는 세상을 대하는 조귀명의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했다. 요순 시기는 이미 너무 오래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이며, 조귀명이 살아가는 지금시대가 어지러운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조귀명은 이러한 인식을 첫 연에 제시하여 자신이 시국을 대하는 관조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두 번째 연은 출처(出處)를 말한다. 이 시를 지을 당시 조귀명은 마지막 과거를 보기 한해 전이었는데 벼슬길[靑紫]은 분수 밖의 영화라고 하였다. 분수 밖의 영화라는 말은 물론 겸사이지만, 이를 통해 조귀명이 환로에 전연 뜻을 두지 않았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어조(漁釣), 즉 자연인으로 지내는 것마저 몽중(夢中)의 기약(期約)이라는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역시 조귀명의 복잡한 심사가 드러난 구절로 추측된다.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조귀명은 출사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유유자적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20대의 조귀명이 남긴 글들을 보면 그가 과업(科業)에 전념하지 않았고, 과거와는 거리가 먼 글들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과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과부(科賦), 논설(論說) 그리고 정견(政見)을 담은 대책(大策)도 남겼지만, 과거 준비를 위한 글이라기에는 형식과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 조귀명의 조부인 조상우(趙相愚)는 송준길(宋浚吉)의 문인으로 조정에서 명재상(名宰相)이라는 칭송이 자자했으며, 조문명(趙文命), 조현명(趙顯命)을 비롯한 형제들 역시 환로에 진출한지 오래이다. 그런 상황에서 친족뿐만 아니라 이하곤(李夏坤)까지 과거에 매진하여 출사하기를 강권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의 복잡한 심경이 바로 자신이 진정으로 몰두하고 싶은 ‘어조(漁釣)’는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탄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음의 두 연은 매 구마다 전고를 넣어 앞에서 읊은 조귀명의 출처관(出處觀)을 비유하였다. 초명(鷓鴣)과 기린(麒麟)은 모두 비범한 뜻을 품은

존재이다. 이는 세상을 관망하며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처지인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이가 악을 용납하지 못하여 망망연(望望然)히 떠나듯이 환로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읊는다. 평생을 고생해도 『장자』에서 이른바 성공하지 못할 ‘쓸데없는 고생’만 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귀명이 지향하는 이상(理想)은 무엇인가? 바로 이름 없는 성인이자 자유로운 남아이다. 이 역시 『장자』의 고사를 끌어왔다.¹⁹⁾ 세속의 가치나 평가에 무관심한 성인에게 세속적 명예 따위는 무화된다는 말이다. 이 연이 바로 조귀명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삶의 자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명과 자유를 이룰 수 있는가?

무명(無名)과 성인(聖人), 자유(自由)와 남아(男兒)라는 시어는 상투어가 아니다. 조귀명은 ‘사람이 성인이 되지 않으면 긍심(肯心)이 없게 되니, 진실로 긍심에 힘쓰면 성인이 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²⁰⁾라고 하였다. 배움으로 성인에 도달하는 것은 유학의 궁극적 목표인데, 조귀명의 말에 따르면 이와 달리 ‘기꺼운 마음[肯心]’만 있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인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편안하다고 하였다.²¹⁾

조귀명이 말한 무명이란 명성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이다. 조귀명은 성인과 남자를 병치하였다. 무명의 성인은 자유로운 남아와 다르지 않다. 마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과거라는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큰 뜻을 품은 대장부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인이라는 뜻이다. 이러

19) 『莊子』, 〈逍遙遊〉, “故曰至人無己, 神人無功, 聖人無名.”

(聖인은 명예가 없음. 세속의 價値 評價에 무관심한 성인은 名譽가 없음. 즉 성인 앞에서는 세속적 명성 따위는 無化된다는 뜻.)

20) 趙龜命, 『東谿集』, 권8. 〈靜諦-哀樂第三〉, “人不作聖, 爲無肯心, 苟辦肯心, 於作聖乎, 何有?”

21) 趙龜命, 『東谿集』 권8. 〈焚香試筆〉, “彼聖人者, 所遇而安, 無入而不自得焉, 則其處乎貧賤窮困天病也, 猶處乎富貴繁華壽康也.”

한 자유는 현실과 유리된 사변적 자유가 아니라 내면의 주체적 도덕성으로 연결된다.

첫 연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러한 태도로 조귀명은 시대를 관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연에서 조귀명은 신선의 방술(方術)을 배워서 세월을 보내고자 한다고 하였다. 조귀명이 말한 선방은 도가의 방술인가? 이를 구체화하려면 역시 조귀명의 언급을 살펴보아야 한다.

항간에 말하기를 ‘인간세상에서의 일 년은 천상에서 하루다.’라 하니, 그렇다면 가령 신선이라는 자가 수 만년을 살아도 사람으로 따지면 칠팔십년에 불과할 뿐이다. 사람이 사는 칠팔십도 다른 세상에서 볼 때 수 만년 사는 것처럼 보는 자가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저 신선들과 다르지 않으니 저들을 부러워할 것이 있겠는가? 황차 바야흐로 베개에 기대어 손을 모으고 앉아 시국의 어지러움을 보니 진실로 늙은 신선이 겹희(劫灰)를 지나고 오랜 부처가 윤회(輪廻)를 벗어나는 것 같다. 내려다보고 일소할 따름이다.²²⁾

조귀명이 칩거하며 사색의 단편을 기록한 <분향시필>의 한 구절이다.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를 짓기 2년 전쯤인 것으로 보인다.²³⁾ 조귀명의 생각에 인간의 칠팔십년은 다른 세상에서 볼 때는 신선계의 수 만년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로 보아 이 시에서 ‘학선방(學僊方)’이라고 한 것은

22) 위의 글. “俗言: ‘人間一年, 天上一日.’ 然則政使神僊者, 活數萬年, 不過當人七八十耳, 吾之七八十, 又安知他方世界不有視爲數萬年者耶? 然則我與彼無異也而羨彼也耶? 況方欹枕拱手坐, 閱時局之翻覆, 真是老僊之經劫灰, 古佛之脫輪廻耳. 下視一笑而已.”

23) <분향시필>은 단편적인 기록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어느 정도는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로 든 조목의 앞 조목에는 ‘문을 닫고 향을 사르고 조용히 앉으니, 세상에 한가한 사람이 더없이 복 받은 사람인 줄을 더욱 알겠다.[閉戶燒香默坐, 益知世間閑者爲無上福人.]’라고 하였고, 뒤 조목에는 ‘壬寅年 仲夏에 우연히 구안와사 증세를 얻었다. 바람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으니 종일 무료하다.[壬寅仲夏, 偶得口眼喎斜症, 畏風閉戶, 終日無聊.]’는 언급이 있다.

실제로 도가의 신선술을 배운다는 말이 아니며, 마음으로 구축한 세계에서 자신은 이미 신선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이다. 이 세계는 변화불측한 시국과는 단절된 공간이며, 현실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그저 고요히 관찰하며 일소에 부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것이야말로 조귀명이 가장 소망하는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수는 붕당(朋黨)을 주제로 한다.

백성들 농사 일 근심하건만	野人畎畝憂
조정의 해와 달은 높기만 하네	朝廷日月高
붕당은 어느 누가 이름 지었나	朋黨誰名號
원개(元凱) ²⁴ 가 순(舜) 임금을 원망하였지	元凱怨虞陶
간담처럼 가까운 사이 초와 월처럼 멀어지고 ²⁵	楚越生肝膽
생사(生死) ²⁶ 가 포핍에서 변화무쌍하네	霜露變貶褒
휘황 나는 사람 기운 무지개를 찌르고	騫騰氣干虹
영락(零落)한 사람의 피는 칼을 적시지	零落血漬刀
걸음걸음 정말 죽음으로 가는데	步步真趨死
분주하게 어찌서 스스로 수고롭나	營營胡自勞
가볍게 배를 띄워서는 아니 되니	不敢輕放舟
하늘에 당도록 바람과 파도라네	極天是風濤

24) 元凱는 八元八凱를 이른다. 옛날 高陽氏의 재주 있는 여덟 아들을 백성들이 八凱라 불렀고, 高辛氏의 재주 있는 여덟 아들을 八元이라 불렀다. 堯는 그들의 자손을 등용하지 못했으나, 舜이 堯의 신하가 되었을 때 이들을 등용하였다. 『春秋左氏傳』 〈文公18年〉 기사에 보인다.

25) 楚와……멀어지고 : 초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거리가 멀어서, 아주 먼 사이를 비유한다. 『莊子』 〈德充符〉에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보자면 간과 담도 초월처럼 멀다.〔自其異者視之, 肝膽楚越也.〕”라고 한 데서 온 표현이다.

26) 生死 : 원문의 霜露는 雨露와 霜雪의 줄임말이다. 봄이면 만물이 우로를 받아 생육하고, 가을이면 상설이 만물을 肅殺하므로, 은택과 責罰, 또는 살고 죽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제4수는 앞의 시들과는 달리 다분히 직설적, 격정적이다. 이 수는 봉당 비판이 주제이다. 조귀명이 세상을 떠난 지 40여년이 지난 후에도 조정에서는 그를 완론(緩論) 족형들과 함께 탕평을 주장한 인물로 기억한다.²⁷⁾ 탕평의 정치적 견해는 조귀명의 대책(對策)²⁸⁾과 논(論) 등에서 산견되지만, 위 작품처럼 자신의 견해를 격정적으로 표출한 경우는 없다. 사론(史論)에서는 고사에 빗대어 에둘러 표현하는 것²⁹⁾이 일반적이었지만, 본디 정견을 드러내는 대책에서도 봉당의 폐해를 직서(直敘)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유현(儒賢)은 허명(虛名)에 불과하다³⁰⁾는 식으로 봉당의 알력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권신(權臣)으로의 유현을 비판하거나, 공부는 안 하고 정치판에나 기웃거리며 영수들에게 붙어서 하수인 노릇이나 성균관 유생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식³¹⁾이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봉당에 대한 조귀명의 견해를 가감 없이 서술한

27) 『英祖實錄』, <49년 6월 24일>, “上親製趙龜命文集序, 龜命號東谿, 故相相愚之孫也, 爲人清淨寡慾, 而以文章名於世, 當其諸從兄弟柄用之日, 獨絕意科宦, 究心書籍, 爲上入學時將命生, 上聞其有文集, 而主張蕩平之論, 與李天輔·元景夏輩相親, 故遂製其序文以賜之, 謂諸臣曰: 以布衣之文集, 得人主之序文, 此足以代卿相之貴也.”

28) 조귀명의 대책문에 대해서는 「趙顯命 책문 연구」(최두현, 『한국한문학회연구』 80, 한국한문학회, 2021)가 참고된다.

29) <가의론>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30) 趙龜命, 『東谿集』 권12, <策經一〇道學>, “我國之事, 類多虛僞, 而此其尤甚者. 且夫上旣以是爲足以待賢, 不復以誠致之下之. 新學之士, 見人之一以道學爲名, 節次推擢, 以至於華顯, 而不復考其實也, 則將靡然相率而趨於僞, 執天下之利柄以邀於世矣. 雖其超羣拔萃之才, 不必以是爲憂, 而豈可以超羣拔萃, 皆期於天下之士哉? 是以上下交相欺, 而其弊不知其所極. 然則如之何而可? 誠以致之, 禮以待之, 以試其才, 隨其才之大小, 任之以職, 毋徒取用儒賢之虛名, 而務要獲用儒賢之實功也.”

31) 위의 글, “嗚呼! 今之士習, 求其犯分而止, 不可得也. 隨朝廷之傾奪, 而動必爲其機括; 助執政之聲勢, 而事輒承其指麾; 紛紛逐逐, 鼓發狂鬧, 環一區之辟雍, 爲鬻觸爭鬪之場矣, 此非大可寒心者耶!”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에서는 봉당의 부작용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을 다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집중하였는데, 이는 앞 3수에서 말한 자신의 처세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수는 대부분의 연에서 대(對)를 충실히 지켜 형식미를 갖출 뿐만 아니라 조귀명 특유의 골격을 구절마다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제4수 역시 제3수와 같이 구체적 서술 이전에 한 수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첫 연에서 제시하였다.

첫 연의 ‘조정이 현실을 모르고 해와 달처럼 떠있기만 한다.[朝庭日月高]’는 민생과 유리된 중앙정치의 현실을 비꼰 말이다. ‘해와 달처럼 높은’ 모습은 그 빛이 온 세상을 다 밝힌다는 점에서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한유가 <송장도사서(送張道士序)>에서 “하늘 높이 뜬 해와 달은, 모두 비추고 빠트리지 않네.”³²⁾라고 한 것이 그 일례다. 이는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민생의 어려움이 아니다 흉년에 대한 조귀명의 체험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

조귀명은 기근과 전염병이 한창일 때 유년기를 보냈다. 기근의 참담함에 비해 개인 문집에 그 참상을 기록한 경우는 이상하리만큼 드문데, 조귀명은 사재(私財)로 흉년을 구제한 김유연을 입전하여 기근의 심각함과 관의 무능함을 드러내었다. 이는 민가에서 기근을 체험했던 유년의 기억으로 가능한 작품일 것이다. 조귀명은 마마를 잃기 전까지는 집에 들이지 말라는 점쟁이의 말 때문에 10세까지도 유모와 함께 집 밖에서 지냈다. 이 과정에서 기근의 참상을 목도하고 체감했을 것이다. 기근의 참상으로 수없는 백성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정은 당쟁에 몰두하여 민생을 외면한다. 첫 연은 조귀명이 인식하는 정치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다음으로 ‘팔원팔개(八元八凱)’를 봉당으로 인식하도록 만든 순(舜)을,

32) 韓愈, <送張道士序> “天空日月高, 下照理不遺.”

그 원개가 원망했다는 말은 기존인식에서 한발 더 나아간 비판이다. 팔원과 팔개는 순이 요(堯)에게 천거하여 등용된 현인 열여덟 사람을 말한다. 구양수(歐陽修)의 〈붕당론(朋黨論)〉에 “소인인 공공(公共)과 환두(驩兜) 등 네 사람이 한 붕(朋)이 되고 군자인 팔원, 팔개 열여섯 사람이 한 붕이 되었는데, 순이 요를 도와 사흉(四凶)인 소인의 붕을 물리치고 팔원팔개 군자의 붕을 등용하니, 요의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다.”라고 하였다.³³⁾ 쫓겨난 붕인 공공과 환두가 순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쫓겨나지 않고 함께 천하를 다스린 팔원팔개마저 ‘붕당’이라고 불리게 된 탓에 순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붕당의 폐해가 성인의 업적마저도 가릴 만큼 크다는 인식이다.

간담(肝膽)처럼 가까운 사이가 초와 월처럼 멀어진다는 말은 『장자(莊子)』 〈덕충부(德充符)〉의 “다른 것을 기준으로 보면 간과 쓸개도 그 차이가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멀고, 같은 것을 기준으로 보면 만물이 모두 하나이다.”³⁴⁾라고 한 데에서 가져온 말이다. 하나의 배에 들어있는 간과 쓸개는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장기이다. 초와 월은 통상 먼 거리의 의미로 쓰이는데, 한 몸에 들어있는 간과 쓸개의 거리가 초와 월나라처럼 멀다는 의미이다. 한 집안에서도 당색(黨色)이 다른 경우가 흔하거니와, 그러한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피를 나눈 친인척, 우정을 나눈 친구가 당파로 인해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을 만든 것, 붕당의 폐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상로(霜露)는 우로(雨露)와 상설(霜雪)로 생사를 의미한다. 포핍(褒貶)은 『춘추(春秋)』의 대지(大旨)이자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엄밀한 판단이다. 이런 중후한 기준과 잣대마저 당쟁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져, 상소(上疏)와 무고(誣告)로 상대방을 죽이고 어제의 포(褒)가 오늘의 핍(貶)이 되니, 그야말로 ‘순을 원개가 원망할’ 상황인 것이다. 이를 들어 조귀명은 “교묘한 잔피와

33) 歐陽修, 〈朋黨論〉, “堯之時, 小人共工驩兜等四人爲一朋, 君子八元八凱十六人爲一朋, 舜佐堯, 退四凶小人之朋, 而進元愷君子之朋, 堯之天下大治.”

34) 『莊子』, 〈德充符〉, “自其異者視之, 肝膽楚越也. 自其同者視之, 萬物皆一也.”

권모술수는 가히 천하의 변화를 제어할 수가 있다고 하고, 허교(虛橋)와 과후(夸誦)는 가히 천하의 명분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라며 비판했다.³⁵⁾

당쟁에서 이긴 쪽은 훨훨 날며 그 기운이 무지개를 찌를 정도가 되고, 영락한 이는 은거(隱居)는 고사하고 그 피가 칼을 적시게 되나, 하루가 다르게 상로와 포퓰이 뒤집히는 현실 정치에서 그들 모두는 결국 모두 ‘걸음 걸음 죽음으로 가는’ 상황이며, ‘분주하게 스스로 수고롭게 할’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로에 나아가는 것은 마지막 연의 말대로 ‘경솔하게 배를 띄우는 것[輕放舟]’이다. 4수의 마지막 연 역시 3수와 같이 자신의 마음 가짐과 태도를 비유하여 마무리하였다.

마지막 수는 질병의 고통과 그 해소 방안을 읊었다.

특별한 술법으로 수명 늘이기 허망하니	異術延年妄
잘하는 일이라곤 조섭(調攝)한다 사람 거절하는 것 ³⁶⁾	長技養病工
쇠잔하여 병든 학을 가여워하고	摧殘憐病鶴
삭막하여 땅속의 벌레 짝이 되네	索莫伴蟄虫
천리(天理)가 길러주고 얻는 것 ³⁷⁾ 알 도리 없고	天理昧栽覆
인생에 궁(窮)과 통(通)은 어렵פות하네	人生莽窮通

35) 趙龜命, 『東谿集』 권1, 〈送宋參判【成明】赴燕序〉, “智巧權數, 謂可以御天下之變; 虛橋夸誦, 謂可以執天下之名.”

36) 조섭한다 ~ 거절하는 것: 원문은 養病. 병들었다고 핑계를 대고, 방만한 사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후한 高彪가 馬融을 방문하여 大義를 물으려고 하였으나, 마음이 병들어 만날 수 없다고 거절하자, 고표가 옛날 선비를 만나려고 급급했던 周公과는 전혀 다르게 “공은 지금 병을 치료한다면서 선비를 오만하게 대한다.[公今養病傲士]”라고 책망하고는 그대로 떠난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80下 〈文苑列傳 高彪〉

37) 길러주고 얻는 것: 원문은 栽覆. 『중용장구』 제17장에 “하늘이 만물을 기를 때에 반드시 그 자질에 따라서 돈독하게 하니, 바르게 심긴 것은 자라게 하고 기울어진 것은 엎어서 죽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임경주가 한창 왕성하게 성장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만물을 기르는 하늘의 이치에 역행한다고 한 것이다.

육신의 허물 벗을 줄을 알겠네만	固知形委蛻
근심스럽고 애절한 마음 어찌할꼬?	其如意悵忡
의화(醫和), 편작(扁鵲) 진료를 받아본 적 없어	未遇和扁診
약석(藥石)의 효험을 말하기 어렵네	難奏藥石功
마음 맑고 고요하기 네가 힘을 일이니	習靜還爾力
때로 주인공(主人公)을 불러야지	時喚主人公

1, 2연은 고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신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이술(異術)로 연명하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은 아무리 특별한 방법도 질병에 효험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뒤에 서술하겠지만, 〈유희부〉를 보면 조귀명이 어릴 적부터 갖은 치료를 받았던 것, 그리고 그것이 큰 효과가 없어 방치되다시피 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장성하고도 조귀명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물리치며 칩거하는 일이 잦았다. 2연에서 병든 학이나 땅속의 벌레를 자신과 동일시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다음의 두 연은 왜 자신의 운명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늘의 이치는 선한 이에게는 복(福)을 주고 악한 이에게는 화(禍)를 주는 것이 정상이다.³⁸⁾ 그런데 자신과 같은 멀쩡한 인간이 왜 이토록 참혹한 화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다. 궁통(窮通)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는 꼭 부정적인 말은 아니다. 조귀명은 곤궁함이 극도에 이르면 조화옹이 반드시 한 걸음을 너덕하게 해준다고 하였다.³⁹⁾ 다음 연을 살펴본다.

형육(形肉)이 남은 허물일 뿐이라는 말은 역시 『장자』에서 차용하였다. 〈지북유(知北遊)〉에 ‘천지자연이 삶을 맡긴 것이기에 내 삶도 나의 것이

38) 趙龜命, 『東谿集』 권8, 〈靜諦〉, “形家之理有乎哉? 曰有, 果蘆有理, 況山川葬地乎? 可求乎哉? 曰不可, 有理斯有命, 命而謂可求乎? 然則何如而可? 曰亦爲善而已. 天理福善禍淫, 與其求諸冥冥, 寧求諸昭昭, 與其求於在物, 寧求於在己, 與其勞父母體魄而求, 寧勞吾心而求.”

39) 위의 글, “人到窮極處, 造化必饒以一步.”

아니⁴⁰⁾라고 하였다. 조귀명은 자신의 병든 육신은 천지자연이 맡긴 허물 일 뿐임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육신에 집착하지 말아야 함에도 마음은 ‘근심스럽고 애통[懨忡]’⁴¹⁾하다. 질병으로 인해 천리의 재복(栽覆)과 인생의 궁통에 의문을 가지는 상황에서 조귀명은 다시 질병을 언급한다. 조귀명은 의화나 편작 같은 명의의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약의 효험도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온 집안사람들이 조귀명의 병을 치료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다만, 백방으로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고 증상이 워낙 특이했을 뿐이다.⁴²⁾

마지막 연에서 조귀명은 질병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습정(習靜)에 힘쓰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주인공, 곧 자신의 마음을 부르는 것이다. 앞서 말한 천리의 재복(栽覆)과 인생의 궁통은 운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이 알기 어렵다. 그럴 바에는 자신의 마음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것이 조귀명이 말한 ‘조화옹의 한걸음’이다.

그러나 기실 이는 조화옹의 운명적 작용이 아니다. 조귀명은 통달한 자는 궁통과 길흉이 없으니, 하늘도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통달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존재이다.⁴³⁾ 고요함으로 수양된 마음에는 절대적 존재의 권능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통달한 존재는 어떠한 해악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몸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받지 않는 것이다.⁴⁴⁾ 앞서 마음이 근심스럽고 애통하다는 것을 보면

40) 『莊子』 〈知北遊〉, “吾身非吾有也, 孰有之哉? 曰: 是天地之委形也. 生非汝, 有是天地之委和也. 性命非汝有, 是天地之委順也. 孫子非汝有, 是天地之委蛻也.”

41) 『詩經』 〈草蟲〉, “嘒嘒草蟲, 趨趨阜螽. 夫見君子, 憂心忡忡. (중략) 陟彼南山, 言采其蕨. 未見君子, 憂心懨懨.”

42) 趙龜命, 『東谿集』 권12, 〈幽懷賦〉, “藥靡功於百方, 症殊號於九種.”

43) 趙龜命, 『東谿集』 권8, 〈靜諦〉, “達者无窮通无吉凶, 天亦奈之何哉? 或慶之, 或弔之, 嚚嚚者人也.”

44) 위의 글, “達人水不能溺, 火不能熱, 寒暑不能害, 禽獸不能賊. 非不溺, 不受溺; 非不熱, 不受熱; 非不害, 不受害; 非不賊, 不受賊, 非身不受, 心不受. 『莊子』謂:

조귀명은 아직 이러한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마음으로 운명을 뛰어넘고 외부의 해악을 받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경지이다. 이는 병든 육신에서 오는 고통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며, 육체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상 〈차제경술회운〉 5수를 분석하였다. 살펴본 것과 같이 다섯 수는 각각의 주제를 담고 있거니와, 그 배치 역시 의도된 것이다.

첫 수의 도학은 조귀명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자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이다. 둘째 수의 문장은 이러한 도학을 드러내는 문장은 도학을 담는 도구이자 조귀명이 매진한 것이기도 하다. 셋째 수는 출사와 관련된 자신의 난처한 상황과 어지러운 시국을 관망하는 자신의 처지를 읊었으며, 넷째 수에서 읊은 봉당의 폐해는 조정의 상황을 비판함과 동시에 앞 수의 자신의 처세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된다.

질병을 읊은 다섯 번째 수를 마지막에 둔 안배는 고질병에 시달리는 처지의 반영이자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자신 사유의 핵심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귀명이 고질병에서 받은 계시는 마음의 중시이다. 이는 내면의 도덕적 수양에 힘쓰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조귀명 세계관의 핵심을 이룬다.

2) 〈유회부(幽懷賦)〉

〈차제경술회운〉에 이어 자전적 운문의 대표작인 〈유회부〉를 살펴본다. 먼저 〈유회부〉의 창작 연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유회부〉는 당대(唐代) 이고(李翱, 772~836)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작품은 시대를 한탄하는 벗에게 화답하는 형식의 작품으로 당시의 혼란상과 세상을 걱정하는 자신의 마음을 서술하는 내용이다. 구양수는 이고의 〈유회부〉를 높이 평가하며,

謹於去就，莫之害旨。斯下矣。”

그와 같은 시기에 태어나지 못했음을 한탄하였다. 이고의 〈유회부〉는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후대에 차운작이 활발하게 지어졌다. 조선의 경우 고전 종합DB 검색으로 기준(奇遵) 〈의유회부차이고운(擬幽懷賦次李翱韻)〉, 김석주(金錫胄) 〈차이습지유회부(次李習之幽懷賦)〉, 남몽뢰(南夢賚) 〈봉화 김진사지중차유회부운(奉和金進士之重次幽懷賦韻)〉, 강석규(姜錫圭) 〈김자남차이고유회부이시보운이증(金子南次李翱幽懷賦以示步韻以贈)〉, 김유(金樑) 〈차운유회부(次韻幽懷賦)〉의 5인이 이고의 〈유회부〉에 차운한 작품이 보인다.

조선조에 〈유회부〉를 지은 5인은 다 이고의 작품에 차운인데 비해서, 조귀명 한 사람만은 이고의 그것과 제목만 같을 뿐 형식의 면에서는 관계가 없다. 운(韻)이 다르고, 편폭도 훨씬 길다. 앞서 표로 조귀명의 운문을 개괄하였거니와, 시의 경우 차운시가 많으며 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작품만은 유독 차운을 하지 않았다.

이고의 〈유회부〉가 7·6자구가 반복되는 잡언부(雜言賦)임에 반해, 조귀명의 〈유회부〉는 언뜻 보기에 전삼자(前三字)와 후이자(後二字) 사이에 반드시 허자(虛字)를 사용한 조선 후기의 과부(科賦) 형식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압운을 전혀 하지 않은 과부와 다르게, 조귀명의 〈유회부〉는 매 연에 운자(韻字)를 두었고, 모두 열 차례 환운(換韻)하여 단락을 구분하였다. 운자의 활용 또한 흥미롭다. 제4단락에서 거성(去聲) 송(送)과 상성(上聲) 종(腫)을 통운(通韻)하였고, 제6단락에서는 거성(去聲) 치(寘)과 상성(上聲) 지(紙)를 통운(通韻)하였으며, 8번째 단락에서는 평성(平聲) 마(麻)와 거성(去聲) 우(遇)를 한데 묶어 썼다. 또 제2단락은 입성운(入聲韻)을 운목(韻目) 구분 없이 쓴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유회부〉는 운자 기준으로 10개 단락으로 구분되며, 내용상으로는 제5단락 이전과 제6단락 이후로, 앞뒤로 양분된다. 〈차제경술회운〉이 5개의 주제를 다루었다면, 〈유회부〉는 조귀명의 평생을 관통하는 ‘병(病)’

에 집중한다. 작품의 길이나 내용으로 보아 이 〈유회부〉 조귀명이 남긴 6편의 부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평생 조귀명의 고질병은 그의 사유의 형성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 만큼, 〈유회부〉는 조귀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와 별개로 숙련된 문인들에게도 부를 창작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다. 이점은 일반적으로 남긴 부가 적다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조귀명은 왜 여타의 시부(詩賦)와 달리 차운하지 않고 별도의 운자를 사용하여 10단락이나 되는 부를 남겼을까?

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인다는 정의와 같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데 가장 적합한 문류이다. 물론 조귀명의 산문과 시에도 병에 대한 언급은 적지 않지만, 부처럼 고질병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 시말을 기록하는데 적합한 형식은 없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회부〉의 핵심 단락을 분석하여 조귀명의 자전적 기록 양상을 살펴본다.

제1단락은 상제가 부여한 운명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상제는 거룩하게 아래에 굽어 임하여	上帝皇以臨下
천지를 풀무로 만물을 빚어내지	秉乾籥而陶甄
어찌서 운명을 정해주기 고르지 못해서	胡播命之不均
어지러이 서로 견주어 기이하고 편벽될까	棼參互而奇偏
공자는 길에서 죽었지만 요임금 이마	孔道死而堯顙
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했지만 올빼미 어깨	嬴宇制而鴟肩
안연(顏淵)의 수명은 조균(朝菌)보다 짧았고	顏壽促於朝菌
가난하게 살아 현인으로 일컬어졌네	生瓢飲以稱賢
도착(盜跖)은 동릉(東陵)에서 사람을 회를 뜨고	跖膾人於東陵
뻘뻘하게 잘 늙어서 백 년을 살았네	儼槁頂以百年
배불뚝이 아이들과 다투어 화내고	爭皤童與赫辱
기린의 똥과 정수리에 골몰하였네	汨騏糞又麟顛

예로부터 쌓인 의문 마음에 걸려
그 까닭 찾으려니 나는 아득하네

耿蓄疑於終古
尋厥故予茫然

제1단락 첫 구를 ‘상제는 거룩하게 아래에 굽어 임하여[上帝皇以臨下]’로 시작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귀명이 스물아홉 자기 일생을 돌아볼 때, 상제를 동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혹독한 경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제는 조귀명에게 재앙과 같은 운명을 부여한 존재이자 해결법을 제시하는 절대자이다. <유회부>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제7단락 첫 구의 ‘상제는 측은히 여겨 나를 불러서[帝惻然而進予]’ 뒤로는 다 상제의 말이다. <유회부> 전반부에 서술한 혹독한 현실과 내적 고뇌는 후반부에서 상제가 설정한 가공의 세계를 통하여 해소된다.

조귀명은 공자와 시황제, 안연과 도척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선악과 운명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상제가 부여한 운명은 왜 선악에 따라 균형이 이루지 못할까? 공자와 시황제의 됄됨이와 외모는 그 좋은 예시이다. 공자와 평생을 떠돌다가 죽었지만 외면은 요임금 이마이며 시황제와 같은 폭군은 천하를 통일하였지만 외면은 올빼미 어깨이다. 이는 내면과 외면이 부조화를 이룬 것이다.

조귀명의 생각에 따르면 하늘의 이치는 선한 사람에게서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겐 화를 주며 하늘이 사람의 원통한 사정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은 넓고도 크다.⁴⁵⁾ 그런데 어찌하여 안연 같은 인물은 요절한데 반해 도척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천수를 누렸나? 이는 선행과 악행이 부조화를 이룬 것이다. 사마천이 열전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탄식하고 하늘의 도를 의심한 것처럼, 조귀명은 오래 전부터 자신과 같은 멀쩡한 인간이 왜 이토록 혹독한 운명을 받았는지 의심하였다. 이것이 제1단락에서 조귀명이 던지는 의문이다.

45) 趙龜命, 『東谿集』 권8, <靜謐>, “天之償人寬弘矣.”

이는 기(氣)의 문제이다. 제2단락의 첫 두 연을 살펴본다.

육기(六氣)가 어지럽게 되고난 뒤에	粵六氣之有沴
질병에 빌미되어 만물 해쳤네	崇疾疢而害物
실로 하늘 도와 잔학한 짓을 하여	寔助天而爲虐
교묘히 유독 해쳤네 저 호걸과 철인(哲人)을	巧獨侵夫豪喆

2단락에 따르면 이러한 부조화는 기가 어지러워졌기 때문이다. 육기는 천지간의 여섯 기운을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천부의 기이다. 이러한 고민은 <정제>에도 보인다. 조귀명은 ‘하늘로부터 받아서 태어나는 기운은 둘이 아닌데 안연은 기운이 견후(堅厚)하지 못한 까닭에 요절했지만, 기운이 견후한 까닭에 극기복례(克己復禮)해서 아성(亞聖)이 되었다.’라는 사색을 남겼다. 안연은 육신의 내면과 육신의 외면이 극단적으로 부조화한 예이다. 내경이 병이 들면 외경도 병이 들어야 하는데, 안연같은 경우가 실재하며 이는 곧 자기 자신이기도 하다.⁴⁶⁾ <정제>에서는 이 모순을 끝내 풀지 못하였으나, <유회부>에서는 육기의 어지러움으로 우선 의문을 해소하였다.

2단락의 마지막 연에서, 사람은 더욱 많아지지만 그 중에 인제는 말의 뽕뽕이에 털 하나 격으로 적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희소한 인재도 육기에 의해 재앙을 받았다.⁴⁷⁾ 여기서 인재란 바로 조귀명 자신을 가리킨다. 이어지는 3~4단락에서는 병의 실체와 경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3단락을 살펴본다.

46) 趙龜命, 『東谿集』 권8, <靜諦>, “受生之氣無二也。顏淵惟氣不堅厚, 故天, 惟氣堅厚, 故克己復禮, 爲亞聖, 若謂心氣堅厚, 而它臟腑氣不堅厚, 是稟於五行者偏, 不足以爲中和。若謂內堅厚而外不堅厚, 人未有內不病而外病者, 吾於是乎疑。”

47) 趙龜命, 『東谿集』 권12, <幽懷賦>, “人億兆其愈多, 才馬體而毛一。胡不東而不西, 適丁彼而降孽。”

어지럽게도 나는 이런 말세에 나서	汨余生此衰晚
품은 뜻 쓸쓸하게도 분발하였네	寥厥志以蹈厲
아, 짧은 수명 닳하지 않고 ⁴⁸⁾ 웅대한 꿈 품고	蹇跂掇而嚶往
읍양(揖讓) ⁴⁹⁾ 하던 옛날을 생각하네	緬揖讓之上世
용호(龍虎)를 성대하게 가슴에 품고	鬱龍虎而蟠胸
풍운(風雲)을 기다려서 험걸찬 기세	候風雲而軒勢
목란(木蘭)으로 만든 배에 혜초(蕙草) 상앗대로	蘭爲舟兮蕙漿
깊은 물을 건너갈 준비를 했네	將以備乎深濟
하지만 운명은 어긋나고 험난해서	而運舛與命蹇
일찍부터 몸이 약하고 체질 나약해	夙形羸而質脆
어릴 때부터 장성해서까지	自呱呱而遂壯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循踵指而至髻
해마다 어느 하루 앓지 않는 날 없고	歲靡日而弗呻
육신은 몸뚱아리 병들지 않은 곳 없어	身無體而匪瘳

3단락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귀명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단락은 자신의 포부와 병고의 심각성을 서술하였다. 조귀명은 용호와 같은 뜻을 품고 풍우와 같은 기세로 삶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호걸과 철인[豪喆]처럼 운명적으로 병에 걸리고 말았다. 자신의 병은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이 부여한 숙명과도 같은 고난이었다는 말이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하루도 앓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48) 짧은……앓고 : 원문의 ‘跂掇’ 두 자의 번역이다. 『莊子』秋水篇에 ‘수명이 길어도 걱정하지 않고, 짧아도 길기를 바라지 않는다[遙而不悶, 掇而不跂]’는 말이 있다. 참고로 郭慶藩의 『莊子集釋』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은 다음과 같다. “遙, 長也掇, 短也既知古今無古今, 則知壽夭無壽夭是故年命延長, 終不厭生而悵悶; 稟齡天促, 亦不欣企於遐壽; 隨變任化, 未始非吾(秋水 第十七)”

49) 揖讓 : 堯가 舜에게 천하를 사양했고, 舜이 禹에게 천하를 사양하였다고 한다.

말세에 태어났지만, 큰 뜻을 품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매진하는 외중에 불행하게도 병에 걸려 참담한 상황이라는 내용전개는 임서봉에게 보내는 편지⁵⁰⁾에도 보인다. 이러한 상투적 서술에서 조귀명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고질병을 대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귀명은 마음으로 질병의 고통을 해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다소 우원(迂遠)한 사유는 앞서 살펴본 〈차제경술회운〉의 마지막 수에도 보이거니와, 〈병해(病解)〉처럼 질병을 소재로 한 작품들의 일반적인 결론이기도 하다. 병으로 인해 오히려 온전한 정신을 보전할 수 있다⁵¹⁾거나, 역설적으로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⁵²⁾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적인 마음작용일 뿐이다. 병은 엄연히 감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자 고통이었다.⁵³⁾ 이러한 시각에서 병의 발병과 진행상황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묘사한 것이 제4단락이다.

아, 집서년(執徐年) 7월이었지	粵執徐之孟秋
나는 그때 처음 심장에 병이 걸렸지	余始邁乎心痛
가슴에 병이 들면 흉한 일이라	病在胸則爲凶
선의(先醫)가 분명하게 말을 해두었지	炯先醫之攸誦
약은 온갖 처방을 써도 효험이 없고	藥靡功於百方
증상은 아홉 가지 심통(心痛)에서 특이한 이름	症殊號於九種

50) 趙龜命, 『東谿集』 권10, 〈與某醫書〉 “出於末世衰俗之間, 而志高乎千古; 生於偏邦窮壤之中, 而心包乎四海. 使其卒有成就也, 則出而用于時, 雖未必其陶鑄三代之雍熙, 而韓富以下事業不屑爲也; 處而明其道, 雖未必其溯濂洛, 接洙泗, 爲命世之眞儒, 而若近世借耳備目之學所深耻也.”

51) 趙龜命, 『東谿集』 권7, 〈病解 一〉.

52) 趙龜命, 『東谿集』 권7, 〈病解 二〉.

53) 기존 연구에서는 〈病解〉와 같은 글을 분석하여 조귀명이 마음의 차원에서 병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 작품은 조귀명이 마음으로 병을 극복하고자 한 대표적 사례로 많이 언급된다. 강수진(2015), 「동계 조귀명의 글쓰기 연구-병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4, 문학치료학회 141~145쪽 참조.

조짐 잠깐 나타나면 정신이 나가	兆暫見而神索
기운이 치받히고 눈앞이 캄캄	氣已升而目瞶
쇠막대를 달구어서 몸을 꿰뚫고	燒鐵杖以橫貫
드는 칼날 잘 갈아서 몸속 후비는 듯	磨利劍以中弄
신이며 하늘 불러 죽기를 빌고	呼神天而乞死
온몸으로 뒹굴면서 죽기를 생각	撇軀殼而思狙
친척들 근심하며 이마를 찡그리고	親懿憂惟頰蹙
의원은 둘러서서 팔짱만 끼고	和扁環以手拱
메밀가루로 미음을 쑤어	粉蕎麥以爲漿
죽을 대신해서 줄곧 먹었지	代糗粥而繼供
시일 지나 겨우 소생했지만	涉時月而塵蘇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떨었지	無冬夏而恒動
병이 낫고 나서도 두려움 남아	縱旣愈而餘悸
평안할 때에도 미리 염려하였지	雖方安其豫恐

집서년은 고갑자(古甲子)에서 辰이 들어간 해이다. 1693년생인 조귀명의 생애에서 이 작품을 창작한 1721년(辛丑, 29세) 이전에 맞이한 辰이 들어간 해는 1700년 경진년(庚辰年, 8세)과 1712년 임진년(壬辰年, 20세)이다. 내용으로 미루어 집서년은 조귀명이 여덟 살 때이던 1700년이다. 질병은 이때부터 평생 조귀명을 옥죄었다. 심장에 병이 들었다고 하였지만, 심(心)은 심장과 명치 부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할 듯하다.

‘가슴에 병이 들면 흉한 일’이라는 언급으로 보아 상당히 위중한 병으로 진단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증상이 아홉 가지 심통에서 특이한 이름’이라는 말은 9종의 심통에 들지 않는 특별한 증상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위중하면서도 병명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불치병이었던 것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기운이 치받히고 눈앞이 캄캄하다는 서술에서 이 불치병이 상당한 통증을 동반했음을 알 수 있다.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

러웠는지는 달군 쇠막대로 몸을 관통하고 예리한 칼로 몸속을 후빈다는 비유로도 짐작할 수 있다.

고통에 죽음까지 생각하는 조귀명의 비극적인 상황을 친척들과 의원은 손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치료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메밀 죽을 쑤어먹으면서 시일이 지나 증상이 자연히 완화되었지만, 후유증은 고질이 되어 평생을 괴롭혔다.

내과 전문의의 조언을 바탕으로 몇 가지 추측을 해보면, 우선 발병 시기가 여덟 살인 것으로 보아 선천성 질환이 아닌 후천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선천성 질환은 대부분 그 이전에 발병한다고 한다. 또한 발병 이후 40여년을 생존한 것을 미루어보면 심혈관계 질환보다는 위장관계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식사를 죽으로 바꾸었다거나 쇠막대기와 칼로 몸속을 후비는 듯 한 증상도 위장관계 질환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처럼 <유회부>의 자술은 그간의 자료보다 분명하게 병의 발병 시기와 증상을 알려준다.

이후도 이러한 식으로 심경의 토로, 질병으로 인한 좌절을 길게 말한다.

애닦게도 나는 이런 병신의 몰골이 되어	哀余罹此支離
남들은 기쁘고 즐거워도 혼자 상심해	衆驩虞而孤傷
저 하루살이 선명한 깃으로	彼蜉蝣之楚楚
오히려 미물인데도 햇벌을 쫓고	尙尙翹而競鬪
초목은 아무런 지각없지만	而草木之無知
철을 따라 싹을 틔워 자라네	迺馮時而茁長
어찌서 나는 이리 근심에 차서	胡獨爲此悒悒
흙덩이마냥 침상에 남몰래 칩거	塊潛蟄于牀
천리마 눈을 깔고 마구간에 엎드려	驥摧眉而廢伏
위축되어 대로(大路)에서 내달리기 어려운 듯	蹙難騁於康莊
대붕(大鵬)이 날개 접고 바다에 내려 앉아	鵬戢翼而海蟠
막혀서 아득한 하늘 오르지 못하는 듯	閑莫搏於渺茫

우경(虞卿)은 곤궁한 처지에서 저술을 했 ⁵⁵⁾	虞著書於窮愁
좌씨(左氏)는 눈이 멀고도 『좌전』을 썼지	左騁辭於目盲
네가 이전의 뜻 넓고 깊게 지니고도	女博曠乎前志
이 이치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였네	而茲理猶未明

조귀명의 좌절과 절망은 결국 상제(上帝)에게 기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상제는 큰 지혜로 조귀명을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가공의, 꿈같은, 가상 세계의 존재로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다.

상제의 말을 빌자면, 공자, 안희, 시황제 등 훌륭한 인물도 훌륭하지 않고를 떠나 일세를 풍미한 이들은 결국 ‘자신을 곤약에 빠트려 명예를 드러내’고, ‘군세고 왕성하지만 영예롭지는 못할’ 따름이다. 갖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가를 이룬 손빈, 범수, 우경, 좌씨 등이야말로 조귀명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대상이다. 게다가 상제는 ‘조귀명에게 총명을 내려주고, 고결한 성품도 거듭 주는⁵⁶⁾ 등 범속한 이들과 차별되는 기질을 내려주었기에 ‘세상이 잘 다스려지면 현용(顯庸)’됨이 당연함을 말한다.⁵⁷⁾ 조귀명을 일생 동안 괴롭히던 병마저도 ‘몸을 빠져나가 끝나게 될⁵⁸⁾’ 것이며, ‘구름 걷히고 안개도 걷혀, 다시 빌 일조차 없게’ 될 것임을 약속한다. 조귀명의 처지를 깨닫게 하는 것, 조귀명이 애당초 범부와 달리 뛰어난 기질을 가진

라의 비밀을 제나라에 알렸다고 의심을 했다. 魏의 재상인 魏齊가 사실을 알고는 대노해서 범수에게 태형을 가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부러져 거의 죽음에 이르렀는데, 몰래 秦으로 망명해서 중용되었다. 『史記』〈范雎蔡澤列傳〉의 첫머리에 있다.

55) 전국 시대 우경이 梁나라에서 困苦한 생활을 하면서도 『虞氏春秋』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를 두고 司馬遷이 “우경이 곤궁하게 생활하며 시름 속에 보내지 않았던들, 글을 지어서 후세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虞卿非窮愁 亦不能著書以自見於後世]”라고 평하였다. 『史記』 卷76 〈虞卿列傳〉.

56) 趙龜命, 『東谿集』 권12, 〈幽懷賦〉, “朕稟女以聰明, 復申之以脩婷.”

57) 위의 글, “世方治而顯庸, 並羣哲而馳驚.”

58) 위의 글, “爰賜予而服予, 病脫體而如幾. 霍雲消而霧除, 曾何足以復祈?”

것, 조귀명에게 현달(顯達)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끝내 조귀명 일생의 고난인 질병조차 낫게 될 것은 모두 상제의 공언(空言)이자, 조귀명 자신의 바람일 따름이다. <유회부>의 결말에서 “상제 명령 진실되어 거짓 아닐 것이니 나는 장차 저 단청(丹青)을 믿어볼까나.”⁵⁹⁾라고 하는 것은 사뭇 골계(滑稽)이다.

4. 결(結)

본고는 조귀명 운문의 창작 경향과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의 자전적 운문 두 편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귀명 운문의 특징은 ‘많은 차운시’, ‘교유의 결과물’, ‘형식적 자유로움’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조귀명의 시는 전체 27제 중 16제가 차운시이다. 이는 자신이 별도로 제목을 두고 적극적으로 시를 짓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차운시가 많다는 것은 교유의 과정에서 지어진 시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교유와 별도로 조귀명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한 인물들 뿐만 아니라 최치원, 장유 등 선인들의 작품에서 차운하여 시부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친족, 문우들이었다. 차운시는 조귀명의 교유를 구명하는데 에도 참고할 점이다. 형식적으로는 고시가 20제로 가장 많으며, 율절은 6편에 불과하다. 운자의 운용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무엇보다 조귀명 운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전적 서술이다. 이는 본고에서 분석한 <차제경술회운>와 <유회부>에 잘 드러나 있다. <차제경술회운>는 각 수마다 학문, 문장, 처세, 봉당, 질병의 명료한 주제를 가진다. 이 작품은 시의 언어로 읊은 ‘자아’라는 점에서 조귀명 이해에 중요한 실마

59) 위의 글, “帝命允而不僭, 余將信夫丹青.”

리를 제공해준다. 〈유회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차제경술회운〉의 주제가 다섯 가지인데 비해 〈유회부〉는 질병에 집중한다. 〈유회부〉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갈등을 내적으로 해소하는 경과를 자술한 작품이다. 조귀명은 상제라는 가상의 존재를 등장시켜 질병의 운명적 속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질병이 발발한 시기와 증상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그간 밝혀지지 않은 조귀명 질병의 실체를 어렵פות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록: 조귀명 시부의 형식, 창작연도, 주제]

시제	형식	창작연도 (나이)	주제	비고
次山谷集演雅體韻, 稚晦聯句	七言古詩	1713(21)	趙顯命과 演雅體로 戲作	次韻 聯句演雅體
同學諸生, 拈農巖集述懷詩韻, 共賦, 余亦作戲語, 次之	五言古詩	1713(21)	자신의 한계를 토로하고 학문적 지향을 논함.	次韻
雪後得月	七言古詩	1714(22)	꽃과 달을 들어 장자적 깨달음을 논함.	
次東山相公韻却呈	五言古詩	1718(26)	윤지완을 칭송함.	次韻 代作
別朱樞還北	五言古詩	1718(26)	주영이 북쪽으로 벼슬하러 가는 것을 전송함.	
洪仲經【濟猷】挽	七言古詩	1721(29)	洪仲經의 문장을 칭송 洪仲經과 문장을 나눔을 회상 李叔이 자신과 洪仲經을 더불어 말한 것을 회상. 洪仲經의 문장을 칭송. 洪仲經의 죽음이 장자적 깨달음으로도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말함.	
除夕諸兄會飲, 次 東坡·簡齋·劔南·牧齋守歲韻. 余亦以古體效嘯	七言古詩	1721(29)	즐거운 밤 연회 자리를 기뻐함. 스물아홉에서 서른 넘어가는 밤으로 농담함. 연회 자리에서 시를 지어 즐김.	次韻
次敬大【載浩】元朝志感詩韻	五言古詩	1723(31)	자기성찰과 운명적 깨달음	次韻
海印寺 走筆 次孤雲韻	七言古詩	1724(32)	불가 경전의 무상함을 읊음	次韻

詠畫	五言古詩	1724(32)		題畫
頭流歌次李詹韻	雜言詩	1724(32)	두류산 유암을 통해 초월적 지향을 발함.	次韻 遊覽
次際卿述懷韻	五言古詩	1724(32)	학문론	次韻
			문장론	
			처세론	
			봉당론 질병론	
古意	七言古詩	1724(32)	꿈속의 몽환적 풍경을 고사를 빌어 읊음	
守申歌, 次際卿韻	七言古詩	1724(32)	守申를 빌어 명리의 공허함을 말함.	次韻
題美人圖	雜言詩	1725(33)	미인도를 통해 경물, 사람, 意, 詩를 점층적으로 묘사함.	題畫
			미인이 꽃을 꺾는 것을 반대하며 자연스레 두는 미학을 논함.	
思古人行, 次華谷韻	雜言詩	1725(33)	화곡의 문장을 칭찬하고 권면함.	次韻
偏塞行, 次華谷韻, 仍遺青色花牋	雜言詩	1725(33)	지리산 기행의 경험을 초월적 상상으로 그려냄.	次韻
走次金僉知韻	七言絶句	1727(35)	초봄 저녁의 경치.	走筆. 斜(평성 麻)와 歌(평성 歌)는 隣韻으로 通韻.
申進士季直, 李進士汝淨, 并嚮來訪, 酒席呼韻	七言律詩	1727(35)	酒宴에 온 두 신계적, 이여정을 칭찬하고 시를 지음.	呼韻
與趙華谷諸詞伯, 登望僊樓呼韻, 【庚戌】	七言律詩	1730(35)	望僊樓에 올라 감상을 논함.	呼韻
望僊樓, 與任伯新兄弟賞月. 次族姪汝範韻	五言律詩	1733(38)	망선루에서 연회자리가 끝남을 아쉬워함.	次韻
第二疊 賦挹清堂	五言律詩	1733(38)	挹清堂의 풍경을 느긋하게 즐김.	
登上黨山城	七言律詩	1733(38)	黨山城에서 내려다보며 흥년을 근심함.	
望僊樓歌, 次華谷韻	七言古詩	1733(38)	망선루에서 화곡을 그리워함.	次韻
元日六章, 和成子擎, 【天柱】	詩經體	1734(39)		
			봄이와 녹는 얼음처럼 인욕 또한 사라질 것을 말함.	
			움트는 싹처럼 인심의 선한 단서도 펼쳐질 것을 말함.	

羅億齡江墅八詠	五言古詩	1734(39)	은사가 산속에서 幽居함을 묘사함.	측성운(遇)
	五言古詩		은사가 바라보는 강물을 묘사함.	측성운(沃)
	五言絶句		새매가 사냥 갔다 돌아옴을 묘사함.	
	五言絶句		함께 중국에 다녀온 말과 이별함을 묘사함.	
	五言古詩		높은 봉우리와 구름을 통해 장자취를 말함.	측성운(漾)
	五言古詩		마을을 바라보며 농사의 흥풍을 걱정함.	측성운(儉)
	五言絶句		지난날 부렸던 권력과 권세를 내려놓고 한가롭게 노닐.	
	五言古詩		어부와 함께 한가롭게 시간을 보냄.	측성운(有)
挽趙盛叔母	五言古詩	1736(41)	趙盛叔 어머니의 죽음을 위로함.	挽詩
			趙盛叔의 문장이 어머니를 불후하게 할 것을 말함.	

부제	창작연도 (나이)	주제	비고
北方有佳人賦	1713 (21)	남녀의 상렬과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꼬며 世評의 부당함과 삶 의 자세를 논함.	
紅鸚鵡賦【并序】	1720 (28)	구양수의 〈홍앵무부〉를 次韻하여 처세를 논함.	次韻
幽懷賦	1721 (29)	숙명적인 질병과 그 경과, 해소를 읊음.	
學士樓，次登樓賦韻	1723 (31)	최치원이 올랐던 함양의 학사루에서 본 경치를 읊음	次韻
三遊西溪賦	1724 (32)	지리산의 서계를 유람하고 지음	遊覽
四寅刀賦	1731 (39)	張維의 〈三寅劍賦〉를 次韻하여 문인으로서의 자세를 서술	擬作 次韻

참고문헌

■ 원전

- 歐陽修, 『歐陽文忠公集』
南有容, 『雷淵集』, 『韓國文集叢刊』 217~218권.
魏慶之, 『詩人玉屑』
俞晚柱, 『欽英』,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趙龜命, 『東谿集』, 『韓國文集叢刊』 215권.
蔡沆, 『詩經集傳』
韓愈, 『韓愈文集彙校箋注』
『朝鮮王朝實錄』(<https://sillok.history.go.kr> 검색)

■ 논문

- 강수진, 「동계 조귀명의 글쓰기 연구-병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4, 문학치료학회, 2015, 129~158쪽.
김민하, 「東谿 趙龜命에 있어서 意의 실체와 세계인식」, 『동양한문학회연구』 67, 동양한문학회, 2024, 37~71쪽.
김형술, 「동계 조귀명의 시문학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12, 211~249쪽.
문미애, 「동계 조귀명 산문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256쪽.
최두현, 「趙顯命 책문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80, 한국한문학회, 2021, 241~294쪽.
_____, 「趙顯命과 趙龜命 散文의 정치적 성격과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1~211쪽.

ABSTRACT

A study on the autobiographical verse of
Donggye Jo Gwi-myeong

Kim, Min-hak

This paper analyzes the autobiographical aspects revealed in the poetry of Dong-seok Jo Yeong-myeong(1692-1737). Although Jo Gwi-myeong focused on prose, the 27 poems and 6 chapters he left behind contain indispensable thoughts. Jo Gwi-myeong's thoughts revealed in verse are more internal and implicit in that they are expressed in the language of poetry rather than the language of prose.

Among his works, his most important works can be said to be <次際卿述懷韻> and <幽懷賦>, which are based on the theme of his own life and thoughts. <次際卿述懷韻> presented five themes and recited his life and thoughts. <Yuhoebu> is a work that describes the process of internally resolving the conflict caused by the pain of illness. The prose writer Jo Gwi-myeong is familiar, but the poetic language written by Jo Gwi-myeong is also unfamiliar to Jo Gwi-myeong researchers. Although these two works are very important materials for understanding Jo Gwi-myeong, they have not been covered so far.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Jo Gwi-myeong's verse, and then analyzes <次際卿述懷韻> and <幽懷賦> to examine how Jo Gwi-myeong's life and thoughts were expressed in his verse. The analysis of Jo Gwi-myeong's verse seeks to provide clues to a coherent understanding of Jo Gwi-myeong's inner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Key Words Jo Gwi-myeong, Verse, *ChaJegyeongsulhoeun*, *Yuhoebu*, Autobiography

논문투고일: 2023.12.31.
심사완료일: 2024.02.02.
게재확정일: 2024.02.07.